

# 보도자료

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6. 12. 1.
- 제공자 : 자유무역협정2과
- 과 장 : 정 현 출
- 사무관 : 박 수 진
- 전 화 : 500-1729

이 자료는 2006년 12월 2일 조간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제목 : 한-미 FTA 제5차 협상 개최

- 농림부는 12.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미국 몬타나 "Big Sky" 에서 개최되는 한·미 FTA 제5차 협상에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을 비롯한 18명의 협상단을 파견한다.
- 농업분과 협상은 12.4(월)~7(목) 4일간 개최되며, 위생 및 검역(SPS) 분과 협상은 양측 대표단의 일정을 고려하여 12.19(화)~20(수)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- 제5차 협상에서 농업 분과는 민감품목의 양허방향을 위주로 논의할 예정이다.
- 농산물 양허안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비교적 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나,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.
-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그동안 품목별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중심으로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 필요성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 양허안 논의상황과 연계하여 농산물 세이프가드, 수입 쿼타 등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바,
  - 특히 지난 4차 협상에서 양측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품목 및 발동요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.
  
- 양국이 내년 1월 제6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음을 감안하여 제5차 협상 이후 대응전략은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품목별 단체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할 계획이다.